

《 書 評 》

Büdel, J., Klima-Geomorphologie,

1977, Gebrüder Borntraeger, Berlin. Stuttgart, p. 303

현대의 기후 지형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독일 Würzburg 대학교의 지리학과 명예 교수인 Büdel 박사가 그의 지금까지의 기후 지형학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 출판한 이 책은 그가 계획하고 있는 기후지형학의 제 1 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 2 권이 기대되고 있는 중이다.

본 저서는 크게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“지형학의 대상: 지표의 기복과 그 형성영력”과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“기후지형학”과 “기후성인 지형학(Klima-genetische Geomorphologie)”으로 구성되어 있다.

본론에서는 처음에 세계의 기후지형학적 구분을 시도하였으며,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論하였고, 지형 형성 영력을 일단 지표면에 기복을 만드는 작용과 지표면을 平坦化하는作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.

그가 예를 든 지형이 대부분 빙하내지 주빙하 지역과 열대 건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지역에서 기후가 지형 발달에 미치는 영향

을 더 잘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.

“기후성인 지형학”이라는 제하에서는 주로 유럽의 지형을 예로 하여서 지표의 형태가 과거 제 4기 동안의 기후 변동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 있다.

이 책의 하나의 단점이라면 이론 지형학의 입장에서 모델 정립 등을 시도해 보지 아니하였다는 점과, 실험과 분석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이 적었다는 점이다. 그러나, 이 책의 가장 큰 업적은 지형영력과 지형형성의 복잡한 관계를 폐(閉)시스템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지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형형성과 지형발달의 이론을 개발하려고 했던 데에 있다. 학문이 극히 전문분야로 세분되고 여러 전문화된 정보가 엄청나게 공급되는 현재에 이러한 책이 출판되어 지금까지의 기후지형학적인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서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 책은 기후학이나 지형학 전공자 뿐만 아니라 지리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.

— 朴 東 源 —